

지역 소식 통

고창 버스터미널, 7월7일부터 임시터미널로 이전

다음달 7일부터 고창 농어촌 버스 교육·시외버스를 이용객들은 임시터미널(고창을 하나로마트 옆)을 이용해야 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오는 7월7일부터 고창터미널을 임시터미널로 이전해 운영한다. 임시터미널은 고창읍 목화에 식당과 농협하나로마트 사이(읍내리 675-2번지)로 현재 차량대기공간 및 간이매표소, 대합실 등의 공사가 마무리 중이다.

동시에 터미널 철거공사도 시작된다. 임시터미널 운영에 맞춰 터미널 매표소 건물 또한 해체계획서를 작성 중이다. 터미널 뒷산가 철거 공사 중 먼지와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가림막도 설치된다. 군은 농어촌버스 광고 공공디자인팀의 읍·면 방문 안내 등 임시터미널 이전 운영 사전 홍보 추진으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채소 작물 진단 바이러스 2분 만에 확인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수박, 멜론, 고추 등 주요 작물의 바이러스병을 2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며, 조기 진단·조기 제거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에 힘을 쏟고 있다.

채소 작물 바이러스병은 치료 약제가 없고 전염 속도가 빨라, 한 번 발생하면 방제가 매우 어렵다. 특히 총채벌레, 진딧물 등이 매개하는 바이러스는 확산이 빠르고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진단 서비스를 연중 운영 중이다. 진단 방법은 작물의 즙액을 간편 키트에 3~4방울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2분 이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적극행정 기반 체류형 관광모델 구축

부안 관광택시, 지역 실질 소비 유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목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외지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부안 관광택시'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실질 소비를 유도하는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부안 관광택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전문 기사가 주요 관광지를 안내하는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으로, 관광객 전용으로 운영돼 부안군민은 이용할 수 없다.

이 서비스는 외부 관광객의 편의성과 아동 접근성을 높이고, 부안의 다양한 명소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관광객은 전화로 코스를 예약하고, 기사와 함께 원하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택시는 1대당 최대 4명까지 동승할 수 있으며, 코스별 이용요금은 3시간 4만 원, 5시간 6만 원, 6시간 7만 원으로 운영된다. 여행 시간과 일정에 맞춰 코스를 선택할 수 있어, 가족 단위 또는 소규모 그룹 관광객에게 특히 적합하다.

부안군은 관광택시 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해 관광택시 기사 대상 친절 서비스 응급처치, 관광사진 촬영, 해설 교육 등 전문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행가는 달, 가정의 달 등 특정 시기에는 50% 요금 할인 이벤트도 진행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관광지원 연계, 프로모션 홍보, 택시 배차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행정을 구현하는 모범적인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부안 관광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와 청렴 토크 콘서트

부안군은 지난 2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권익현 부안군수와 함께 하는 청렴 토크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기존의 딱딱한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군수와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과 뮤지컬 공연을 접목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에서 권 군수는 직접 무대에 올라 청렴의 가치와 실천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어진 즉석 질의응답 시간에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하면서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격려하며 상호 소통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군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



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공직자로서 청렴을 실천하는 데 있어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이번 청렴 토크 콘서트는 일방행적인 교육을 넘어 쌍방향 소통 중심의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직원들이 청렴을 보다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백정기 의사 순국 91주기 좌담회 개최

선양사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백정기 의사의 순국 91주기를 맞아 정읍시에서 열린 좌담회는 독립운동가로서 그의 업적과 정신을 조명하며, 앞으로의 선양사업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시는 지난 19일 오후 4시, 영원면에 위치한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구과 백정기 의사의 순국 제1주기를 기념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백 의사의 독립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재조명하고, 지속적인 선양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담회는 아하K로컬컨텐츠연구소 백남이 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흥

로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정읍시와 기념사업회의 그간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학회 이도형 회장은 효창공원에 안장된 백정기, 윤봉길, 이봉창 3의사의 비교와 인지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백 의사 선양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자유 토론을 통해 향후 지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오늘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사의 업적과 이념, 독립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참석자는 "백정기 의사를 알리고 선양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 공감대를 넓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정기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시대를 넘어 재조명하는 뜻깊은 시도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좌담회 녹화본을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 '정읍TV'에 게시해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장마철 앞두고 재해예방 총력... 이학수 시장 현장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9일 장마철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조, 배수펌프장, 홍수특보지점 등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점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대실지구 우수저류조를 시작으로, 슬러지 퇴적 상태와 펌프 운영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현장에서 그는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 지역의 철저한 점검과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긴장



감을 유지한 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신태인 배수펌프장을 찾아 펌프 가동 상태, 전력 공급의 안정성, 비상 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홍수특보지점에서는 하천 퇴적물 처리와 홍수 방어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인근 마을의 실제 대피 동선까지 직접 점검하며 주민 보호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점검과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전 부서가 협력해 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시행

부안군, 50세 이상 6개월 앞당겨 7월1일부터 실시

부안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오는 7월 1일부터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됐으며, 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0세 이상(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군민이다.

접종은 생백신 1회로 이뤄지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생백신 접종 금지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포진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연령대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는 50세 이상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